국제 농업 정보(2021. 6.):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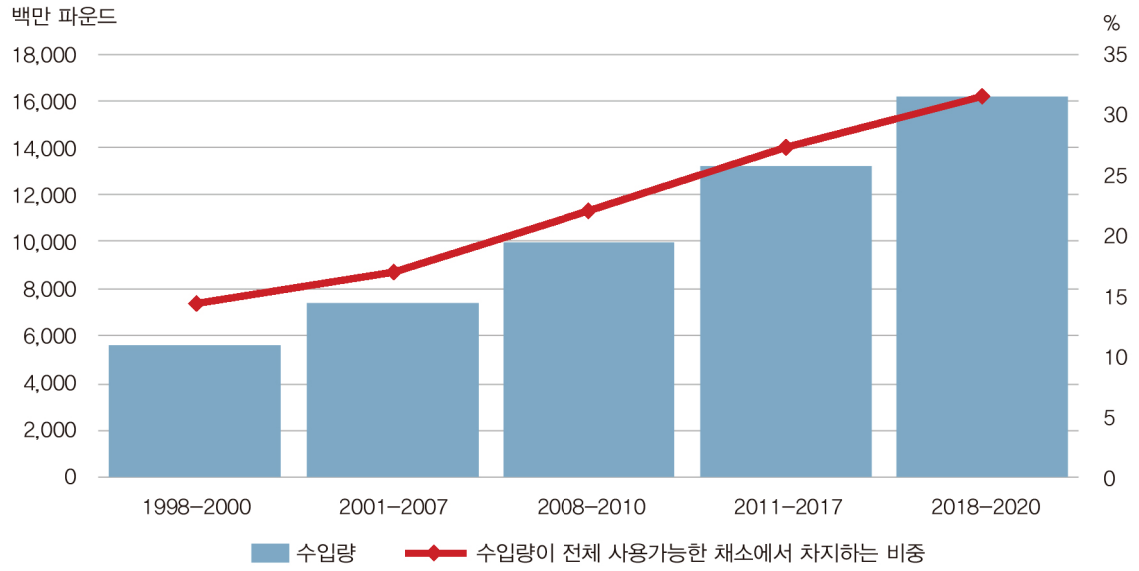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신선 채소 수입량 증가와 원인[1)]

■ 미국으로 수입되는 신선 채소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량이 미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채소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
- 감자를 제외한 신선 채소 수입량은 전체 사용 가능한(available) 채소의 32%를 차지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신선 채소 수입량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입량을 비교해보면, 온실 재배된 채소의 수입량은 109%가 증가하였고, 노지에서 재배된 채소는 58%가 증가하였음.

| 그림 1. 미국 내 채소 수입량 변화 |



출처: 미국 농무부(USDA).

1) 미국 농무부의 "Vegetable and Pulses Outlook"(2021.4.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국제 농업 정보(2021. 6.): 미국

■ [수입량 증가 원인] 수입량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비용, 무역 협정,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 등이 꼽힘.

- (생산비용 차이) 미국과 멕시코의 신선 채소 생산 비용이 차이가 남.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2010년 기준 하루 4.75달러로 이후에 빠르게 상승하여 6.80달러가 되었음. 특히, 미국으로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북부 멕시코 지역의 하루 최저임금은 10.24달러지만, 미국의 하루 58달러보다는 낮은 수준임.

- (계절적 수요) 제철 신선 채소가 정해져 있던 과거와 달리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식료품점에 채소들의 연간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게 되었음. 국내에서 시기에 맞지 않는 채소를 생산하는 것은 생산비용이 과도하기에, 해외에서 이러한 채소들을 수입해 옴.

- (수요의 다양화) 미국인들이 미디어, 여행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기존에 먹던 소고기와 감자를 대체할 수 있는 가지, 렌틸콩 등 새로운 채소를 찾기 시작하였음.

- (환율 변화) 캐나다와 멕시코의 화폐가치와 비교했을 때, 최근 몇 년간 미국 달러화의 강세가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같은 가격에 더 많은 채소를 수입할 수 있게 됨.

- (소득 증가)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로 인하여 유기농 채소, 온실에서 재배된 토마토, 피망, 오이 등 고급 채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음. 온실에서 재배된 채소의 인기가 높아지자, 미국 내에서 온실 면적을 확대하고는 있으나, 멕시코, 캐나다 등에서도 온실 면적을 늘리고 있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 (인구 트렌드) 미국의 인구는 10년간 매년 0.7%씩 증가해 왔으며, 히스패닉과 아시아 출신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작물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들 작물에 대한 수입도 증가하였음.

- (자유무역협정) 미국-멕시코-캐나다, 미국-페루, 미국-도미니카 공화국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 등이 신선 채소 수입량 증가에 커다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으로 수입되는 채소의 양이 증가하면서 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심화됨.

- 수입 농산물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과거에는 가격 경쟁력이 최우선적이었으나, 소득의 증가로 인하여 품질, 맛 등이 중요한 경쟁 속성이 됨.

- 피망(bell pepper), 오이, 스쿼시 호박, 강낭콩(snap bean) 등의 수입량이 주로 증가하고 있음. 플로리다, 미시간, 조지아,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에서 생산된 미국산 농산물이 주된 경쟁 상대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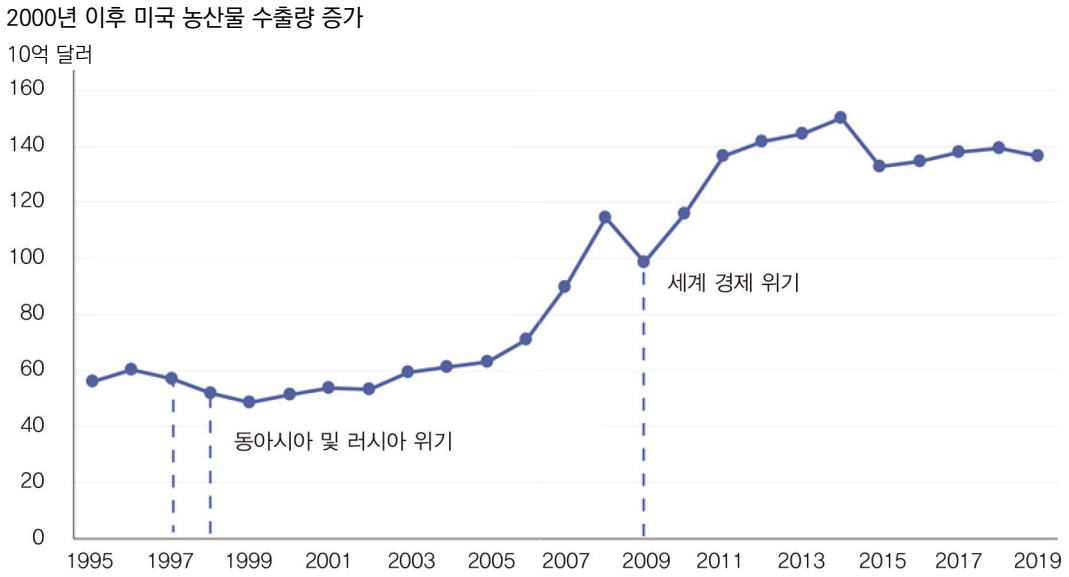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1. 6.): 미국

2 세계적 경제 위기와 미국 농산물 수출 변화[2)]

■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200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 상대국의 경제 상황과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하여 변화가 발생함.

- IMF에 따르면, 1997~2012년까지 경제 위기가 나타나는 데는 ① 지속가능하지 않은 호황(unsustainable credit boom), ②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지나친 채무, ③ 자산 가치의 버블 등이 원인이 되었다고 함.

| 그림 2. 미국 농산물 수출량 변화와 세계적 경제 위기 |



주: 단위는 명목 달러를 기준으로 함.
출처: USDA 세계농업무역시스템

■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미국 농산물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때는 농산물 수출액이 증가하였음.

- **(동아시아 및 러시아 위기)** 1997~1998년까지 발생한 위기로 인하여, 일본, 중국,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의 농산물 수출량이 감소함.

- **(세계 경제 위기)** 2008~2009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 위기로 미국의 농산물 주요 7개[3)] 수출국으로의 수출액이 2008년 830억 달러에서 2009년에는 680억 달러로 17% 감소함.

2)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Economic Crises in Foreign Markets Reduce U.S. Agricultural Exports"(2021.4.2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3) 한국, 일본, 중국, EU(영국 포함), 멕시코, 러시아, 캐나다이며 한국으로의 수출액이 34%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고, EU로의 수출액 또한 31% 감소함.

국제 농업 정보(2021. 6.):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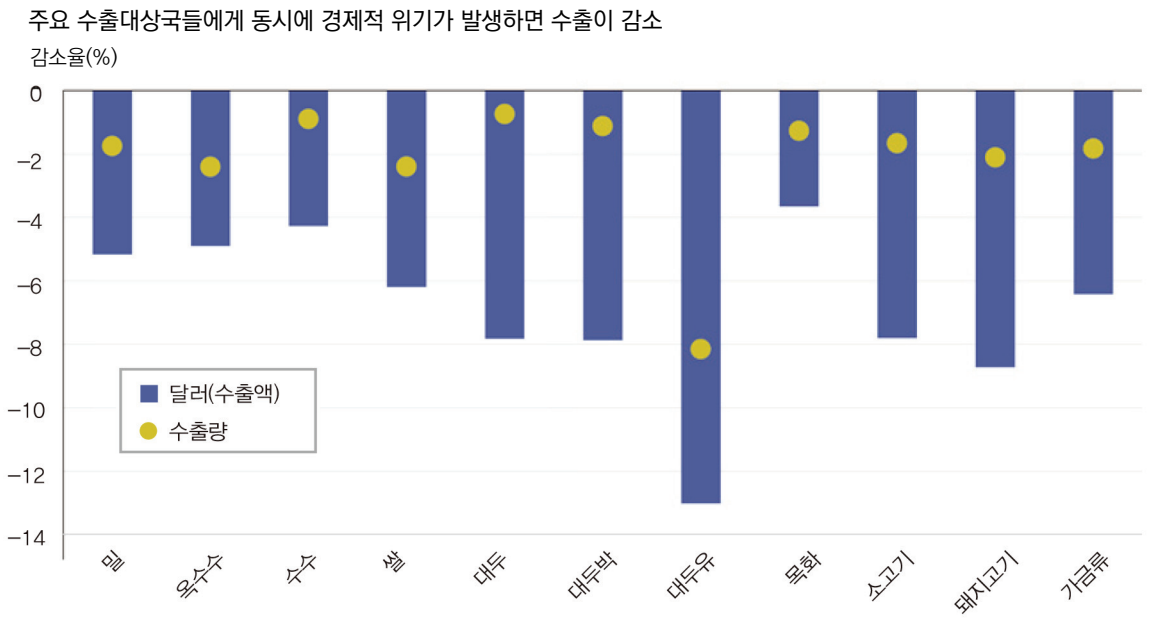
- (코로나19) 세계 경제는 3.5%의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전의 경제 위기 때와 달리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증가함. 2020년에는 농산물 수출액이 7% 증가하여, 1,460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였음. 이는 과거 위기 때와 달리, 달러화의 가치가 주요 국가들의 화폐에 비해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액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것임.

■ 미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농산물 수출량보다 수출액이 더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예측 대상 8개 국가[4]에 국가별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 중국과 EU에서 경제 위기 발생 시 수출액과 수출량 감소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됨.

- 8개국에 동시에 위기가 발생하면, 대두유의 수출량과 수출액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그림 3. 주요 수출국 경제 위기 동시 발생 시, 수출량 및 수출액의 감소율 예측 |



주: 미국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 8개(캐나다, 멕시코, 중국,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에 경제 위기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를 가정, 경제위기로 인하여 수입국의 GDP가 5% 감소하고, 10% 화폐가치 하락이 1년간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음.
출처: ERS Country-Commodity Linked(CCLS) 모델을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5.24.).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2016년과 2017년 기준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영국 포함),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대만이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액의 69%를 차지함.